

# 조선의 구세주 ‘정도령’이 된 타이완의 정성공 3대\*

정 응 수\*\*

(e-mail : chunges@nsu.ac.kr)

## <목 차>

- |                   |                  |
|-------------------|------------------|
| 1. 서론             | 4. ‘정도령’으로서의 정성공 |
| 2. ‘정진인’으로서의 정경   | 5. 결론            |
| 3. ‘해상진인’으로서의 정극상 |                  |

キーワード：鄭道令(Jeongdoryeong), 鄭成功(Zhèng Chénggōng), 鄭經(Zhèng Jīng), 鄭克塽(Zhèng Kè shuǎng), 鄭真人(Jeong True Man), 海上真人(the naval True Man), 道詵の予言書(Dosun's prophecy)

## 1. 서론

이 글은 ‘정도령’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구세주와 명청교체기에 반청복명운동을 벌인 중국의 정성공(鄭成功, 1624-1662) 일가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밝힌 글이다. ‘정도령’은 조선왕조를 타도하고 계룡산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구세주로서 『정감록(鄭鑑錄)』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시기에 따라 정진인, 해상진인, 정도령 등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조선시대 민중들이 염원하던 구세주를 대표하고 있다.

조선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건국 초부터 있었다. 그러나 조선을 멸망시키는 주체가 아직 특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체로 진인(真人)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17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7세기 말

\* 이 논문은 2016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일본학(한일비교문학·비교문화)

이후 숙종조에 등장하는 각종 역모사건에서는 그 주체로 정씨가 자리를 잡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1)</sup>. 그리고 그 주체로 김씨가 아니라 정씨가 등장하는 것은 민중들의 집단적 기억 때문<sup>2)</sup>이라고 한다. 즉 민중들이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반대하다 죽은 정몽주,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으나 방원에게 제거된 정도전, 선조 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정여립, 영조 때 반란에 연루된 정희량 등을 잊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해도(海島)의 정진인’ ‘해상진인(海上真人)’이란 말이 등장한다. 즉 정씨 성을 가진 해상진인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거병을 하여 육지로 쳐들어와 조선을 없애고 새로운 왕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민중들이 이렇게 진인의 근거지로 해도에 주목한 것은 당시 실제로 도서지역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이 총 집결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sup>.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 타이완을 중심으로 반청복명(反淸復明)운동을 펼쳤던 정성공(鄭成功, 1624-1662) 일가의 존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후 이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정도령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는 1728년 3월 무신란의 취조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 다룰 정성공 일가는 앞에서 언급한 정성공과 그 아들 정경(鄭經, 1642-1681), 손자 정극상(鄭克塽, 1670-1717)의 3대를 가리킨다. 이들은 1646년 12월 정성공이 반청의 깃발을 든 이래 타이완으로 거점을 옮겨가며 1683년까지 반청활동을 계속했다. 그런데 그 활약상이 때로는 사실대로, 때로는 부풀려서 조선에 전해지며 커다란 과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들의 성이 정씨란 점이 때마침 유행하기 시작한 도선(道詵, 827-898)의 예언서와 결합하면서 그들을 정진인, 해상진인, 정도령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선정부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중 조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인물은 정경이었다. 정성공 일가의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에 모두 76번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정

- 1) 김우철(2012) 「조선 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真人) 수용 과정」 『朝鮮時代史學報』 60호, 조선시대사학회, p.88.
- 2) 백승중(2012)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pp.240-242. 이에 대해서는 김탁(2005) 『정감록』, 살림, p.68.)이나 김우철(2012)(앞의 논문, p.99.) 등 다른 연구자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 3) 한상권(1992) 「18세기 前半 明火賊 활동과 정부의 대응책」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497-498.

경의 이름이 65번이나 언급된다. 이어서 정극상이 7번, 정성공이 4번 등장하는데, 이제부터 이들과 정도령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다만 정성공-정경-정극상으로 이어지는 가계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조선에서 주목받은 순서대로 기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록』에서 언급된 빈도수와 조선에서 주목받은 시대적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성공 같은 경우 가계도에서는 일가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지만 조선에서는 가장 늦게 주목을 받았다.

## 2. ‘정진인’으로서의 정경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성공 일가 중에서 조선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정경이었다. 『실록』에서는 그의 이름을 정경, 정금(鄭錦), 정금사(鄭錦舍)라 표기하고 있는데, 경은 자(字)이고 금은 아명이다. 정금사라 하여 이름 뒤에 ‘사’를 붙인 것은 그가 국성야(國姓爺) 정성공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정성공은 남명(南明)의 용무제(隆武帝)로부터 주(朱)씨 성을 하사받았는데, 명을 건국한 것이 주원장(朱元璋)이므로 주씨 성은 황제의 성이다. 따라서 이를 국성(國姓)이라 하는데, 여기에 존칭을 나타내는 ‘야(爺)’를 덧붙여 ‘국성야’라 불렀다. ‘사’는 그런 사람의 자제에 대한 경칭으로 소야(少爺)란 뜻을 갖고 있다<sup>4)</sup>.

정성공의 장남으로 1642년 복건성(福建省)에서 태어난 정경은, 정성공이 타이완을 공략할 때 대륙 연안부의 거점인 금문(金門), 샤먼(廈門) 등의 수비 책임을 맡길 정도로 일찍부터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1661년 그의 나이 스무살 때였다. 1662년 타이완을 탈환한 정성공이 세상을 뜨자 정성공의 배 다른 형제인 정습(鄭襲)을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이를 제압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휘하 장수들의 배신과 청·네덜란드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 1664년 3월 대륙의 연안지역을 포기하고 타이완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철수 후 곧바로 타이완에 동녕왕국(東寧王國)을 세우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년간 타이완 통치에 힘을 쏟았다.

정경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삼번(三藩)의 난’이 발발하면서부터이다. 삼번의 난이란 1673년 운남성(雲南省)의 오삼계(吳三桂)를

4) 浦廉一(1953) 「台灣鄭氏(特に鄭經)と朝鮮との關係」 『広島大学文学部紀要』 3, p.74.

필두로, 복건성의 정정충(耿精忠), 광둥성(廣東省)의 상지신(尙之信) 등이 일으킨 반란을 말한다. 반청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각지의 반청세력이 호응하여 한때는 양자강 이남 일대와 사천(四川), 섬서(陝西)가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타이완의 정경도 1674년 이에 호응하여 복건성과 광둥성 일부를 장악해 정성공 이래 일찍이 없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1680년 대륙의 거점을 모두 상실하고 타이완으로 귀환하여 이듬해 1월 40세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내분을 거쳐 그 뒤를 이은 것은 12세의 차남 정극상으로 불과 2년만인 1683년 청에 항복하고 만다. 이로써 3대 23년 만에 정씨 타이완 정권은 막을 내린다. 그런데 이 23년 중에서 20년이 정경의 시대였다. 그런 점에서 동녕왕국은 사실상 정경과 그 운명을 같이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삼번의 난’의 도화선이 된 오삼계의 난이 조선에 알려진 것은 1674년(현종 15) 3월 2일이었다.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했는지 사은사 김수항(金壽恒)이 역관 김시징(金時徵)을 먼저 보내 조정에 알렸지만, 사절이 귀국한 날의 『실록』에는 “사은사 김수항, 부사 권우, 서장관 이우정이 청나라로부터 돌아왔다.(현종개수 15년 3월 5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곧 『실록』에 정경에 관한 기사가 급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경과 관련된 『실록』 기사는 총 65건인데 삼번의 난 이후의 기사가 무려 62건이나 된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전까지는 대개 표류민 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정씨 일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정도였지만,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즉 조선이 정경의 군대와 협력하여 청나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과, 정경의 군대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고 청나라를 섬기는 조선을 정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이 정경과 제휴하여 청을 침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1674년 여름에는 북경에 퍼져 있었다. 1674년 8월 3일, 조선과 정경이 연합한다는 말이 북경에 전해져 북경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켰다는 유창의 보고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청이 산해관 밖의 방어 시설을 보수하고 군사를 증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록』에 여러 번 등장한다<sup>5)</sup>.

또한 정경의 조선 침공설이 퍼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피난 행렬이 꾸러

5) 숙종 1년 1월 26일자 심익현의 보고나 숙종 1년 3월 5일자 동지사 겸 사은사인 복창군 이정 등의 보고가 이에 해당한다.

지는 등 조선 국내 정세도 매우 어수선했다. 정경의 조선 침공설은 1674-5년과 1683-4년, 두 번 조선을 휩쓸었는데, 특히 두 번째의 후유증이 더욱 심했다. 한양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피난민들이 넘쳐났고, 양반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려는 목적을 가진 검계(劍契) 등이 사방에서 조직되었다. 이들은 밤에 남산에 올라 태평소를 불어 군사를 모으는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난하는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등<sup>6)</sup>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소동이 있던 1684년에는 동녕왕국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 정경의 뒤를 이은 정극상이 이미 그 전해인 1683년 8월 13일 청에 항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경의 2차 조선침공설은 전혀 사실무근의 헛소문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조선은 이 소문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이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문으로 인해 조선이 목살을 앓아야 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다음의 인용을 보기로 하자.

금사(錦舍)가 이번에 활약이 컸기에, 오삼계가 금사에게 “이번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다면 (당신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조선에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금사로 말하자면 정씨이기 때문에 조선 6대성에 들어가고 (조선에서의) 유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5, 6백년 전에 승려 도선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말세에 관해 적어놓은 책에 5백년 쯤 뒤에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선의 이러한 예언들도 감안하면 정말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아래 것들이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sup>7)</sup>.

1675년(숙종 1) 11월 8일 쓰시마도주(對馬島主)가 막부(幕府)에 보낸 「조선에서 들은 풍문에 관한 각서」의 일부분으로, 소위 삼변의 난과 관련해 조선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관해 보고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당시 도선이 지었다는 예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통일신라 말기의 승려인 도선이 바로 뒤에 오는 고려가 아니고

6) 『연려실기술』 제36권, 「숙종조 고사본말」, 「난민을 잡아 다스리다」

7) 林春勝·林信篤 編(1981) 「朝鮮国ニ而風說之覺書」 『華夷變態』上, 동방서점, pp.135-136.

錦舍今度之働強御座候故、吳三桂錦舍江為申聞候者、今度之戰彌得勝利候はゞ、朝鮮国支配可為仕と申候由、朝鮮国に伝承、錦舍儀者鄭氏に候故、朝鮮六姓之内に候由緒も有之間、若右之說実正に而も可有之候哉と氣遣申候、殊五六百年以前、釈氏道說と申者御座候処、此者末世之儀書置申候書に、五百年程之後、鄭氏之者朝鮮をも支配仕事可有之由御座候、ケ様之儀に而も候半かと下々氣遣由申候事。

(인용문 속의 ‘석씨도설(釈氏道說)’은 ‘석씨도선(釈氏道詵)’의 오자이다.)

조선의 운명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도선이 지었다는 다른 많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후대인의 위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또한 정씨에 의해 조선이 멸망할 것이라는 도선 명의의 예언서가 이 시기에 존재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 1675년은 이러한 이야기가 왜관을 통해 막부에 보고된 연도이므로 도선 명의의 예언서는 이보다 앞서서 유포되었을 것이다.

또한 정경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정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도선의 예언서에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경도 마침 정씨이므로 정말로 이 예언대로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삼계가 정경에게 조선을 지배하라고 했다는 소문까지 퍼져 있었다. 당시 조선에는 오삼계의 세력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로써 정경도 새로운 정씨 왕조를 세우는 인물, 즉 정진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실록』에 정진인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31년이다<sup>8)</sup>.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당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682년 노계신(盧繼信)의 고변 사건을 보면 “갈 곳은 바로 정경의 나라입니다. 조선을 정가가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내년은 바로 계해년인데, 옛날 인조대왕이 나라를 빼앗아 즉위한 해입니다. 내년 4월이 바로 나라를 차지할 해입니다.”<sup>9)</sup>라는 진술이 나온다. 즉 노계신과 함께 유배생활을 하던 오시항(吳始恒)이, 정씨가 조선을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경이 다스리는 타이완의 동녕왕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물론 노계신이 조작한 이야기지만, 앞에서 본 「조선에서 들은 풍문에 관한 각서」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정씨, 즉 정진인 속에 정경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682년 5월 9일, 황해도 평산군 허사(許沙) 앞 초도(椒島)에 황당선(荒唐船) 9척이 10여 일간 머물다 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허사 첨사 장후량(張後良)이 이를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다<sup>10)</sup>. 다소

8) 『인조실록』 인조 9년(1631) 2월 3일자 기사는 권대진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충청도 옥천의 조홍빈이 고발한 사건을 다룬 것인데, 여기에 정진인이 처음 등장한다. 권대진 등은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하늘의 변화도 참혹하므로 호남과 영남에 있는 여덟 대장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게 하여 대사를 도모하려 한다고 한 다음, 가야산 아래에 사는 정한을 추대하여 인군으로 삼을 것이라 했다. 그는 생김새가 기이하고 두 어깨에 해와 달의 모양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진인이라 부른다고 했다.

9) 『推案及鞫案』 9, 「壬戌 盧繼信推案」, p.500.

과한 처벌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는 당시 이 이양선이 정경의 군대였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1682년 10월 임술 3고변으로 역모에 몰린 왕족 이수윤(李秀胤)이 심문 도중 ‘정금의 이야기를 왜 헛소문이라 하는가? 정금의 군대가 이미 허사에서 모습을 나타내었다. 듣건대, 그 배에 풍신이 좋고 금관자를 단 자가 장후량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가 시종하는 두 사람이 해가 저물어 빨리 돌아가기를 재촉하자 바로 수상한 배로 돌아갔다<sup>11)</sup>’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이 황당선이 정경의 군대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정경이 한강에 나타나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목숨만 보장해 준다면 아무리 정경이라 해도 백성들이 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결국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조선왕조를 대신할 인물로 정경을 은근히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정경은 1681년 1월에 죽었으니까 이 임술 3고변이 있었던 1682년에는 타이완의 동녕왕국을 아들 정극상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역모사건에서 정경을 이용할 정도로 당시 정경이 정진인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당시 “정금에 대하여는 혹은 정지룡의 손자라 말하고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말한다<sup>12)</sup>”는 『실록』의 기사처럼, 정경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3. ‘해상진인’으로서의 정극상

삼번의 난을 이용해 한때 복건성과 광동성의 일부를 장악했던 정경은 1680년 3월, 대륙 연안부의 거점을 모두 잃고 타이완으로 철수한다. 이후 정치를 큰 아들 정극장(鄭克塽, 1664-1681)에게 맡기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향락에 빠져 살던 그는 1681년 1월 28일 40세의 아까운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자 당시 실질적으로 타이완을 다스리고 있던 감국(監國) 정극장의 왕위 계승이 유력해졌지만,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풍석범(馮錫範, ?-?)이 정극장의 숙부

10) 『숙종실록』, 숙종 8년 5월 9일

11) 『연려실기술』 제34권, 「숙종조 고사본말(肅宗朝故事本末)」, 「임술년 역변을 고한 세 가지의 옥사와 김환(金煥)·김중하(金重夏)·김익훈(金益勳)의 아방(兒房) 밀계(密啓) 노·소론의 분열」

12) 『숙종실록』, 숙종 1년 6월 3일.

들과 싸고 정극장이 정경의 친자가 아니라는 누명을 씌워 살해했다. 정경이 죽기 직전에 측근들에게서 정극장에 대한 충성 서약까지 받아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때 정극장의 나이 18세였다.

그런 다음 정경의 둘째 아들로 당시 12살에 불과한 정극상을 3대 연평왕으로 추대한 다음<sup>13)</sup>, 장인인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여 국사를 마음대로 처리했다. 이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분열 조짐이 보이자, 시랑(施琅)을 해군제독으로 삼은 청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1683년 6월 22일 팽호해(澎湖海) 해전에서 유국헌(劉國軒)이 청군에게 패배하자 동녕왕국은 항복을 결심하고, 윤6월 8일 팽호에 주둔하고 있는 시랑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을 청했다. 항복문서를 본 시랑이 타이완 잔류를 희망하는 등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를 거절하자, 동녕왕국은 무조건적인 항복문서를 작성하여 7월 15일 다시 2차 항복문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8월 13일 시랑이 이끄는 청군이 타이완에 상륙하여<sup>14)</sup> 동녕왕국은 최후를 맞이했다. 정극상이 즉위한지 불과 2년만이었다. 이로써 정성공이 명나라의 부활을 꿈꾸며 세운 정씨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변발을 하고 북경으로 보내진 정극상은 정황기(正黃旗) 한군공(漢軍公)에 봉해져 일족과 더불어 북경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sup>15)</sup>.

정극상은 『실록』에 7번 등장하지만, 모두 청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나 항복 후 근황을 전하는 기사뿐이다. 조선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는 현실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인물은 아니었다. 집권한 기간이 너무 짧은데다가, 아버지 정경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였을 것이다. 사실 조선에서는 정극상이 다스리는 동녕왕국이 멸망했는지도 당시에는 몰랐다. 그래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동녕왕국이 없어진 뒤에도 정경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할 것이라는, 정경의 2차 침공설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정극상은 당시 조선정부 입장에서 거의 비중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권력에 불만을 가진 세력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다음의 기록을 보기로 하자.

(1) 그 6년 뒤인 정미(丁未, 1667)에는 복건도(福建島) 사람 임인관(林寅觀)·진득(陳得)·증승(曾勝) 등 95명이 표류하여 대정현(大靜縣)까지 이르렀다. 그 당시 제

13) 조너선 클레멘츠(2008) 『해적왕 정성공』 허강 옮김, 삼우반, p.425.

14) 林田芳雄(2004) 『鄭氏台灣史—鄭成功三代之興亡實紀』, 汲古書院, p.289.

15) 진순신(1995) 『중국의 역사』 11 권순만 외 옮김, 한길사, pp.33-34.



주목사(濟州牧使)였던 이식(李植)의 집에 일기(日記)가 있는 것을 내가 얻어 보고 그때의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칭 번왕(藩王 제후국의 임금) 정성공(鄭成功)이라 하고 일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였다. 그 편지를 내보이고 또 영력 21년(1667)의 역서(曆書)로써 증거를 삼았는데 성공이란 자는 지룡(芝龍)의 아들이었다. 대명(大明)이 망한 후로 성공의 집안은 모두 도망쳐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고, 영력제가 사로잡힌 지도 이미 6년이나 되었는데 어찌 그의 역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가 속이는 말이 틀림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참말로 여기니 웃을 만하다<sup>16)</sup>.

(2) 표해인 일기가 우리 집에 있다. 옛날 승지 이식(李植)이 제주목사였을 때 그들에게 속았다. 그 소위 번왕은 정지룡의 아들 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근년에 옥에 갇힌 수인들이 인용하는 바, 해상진인이 또 정경의 아들이라 하는데 이는 모두 속이는 말이다. 영력은 면전(緬甸, 미얀마) 밖으로 도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삼계 등에게 잡혔는데 어찌 (영력) 21년의 달력이 있겠는가?<sup>17)</sup>

둘 다 이익(李瀾, 1681-1763)의 글인데, (1)은 「영력피금(永曆被擒)」이란 글이고 (2)는 1758년 제자 안정복(安鼎福)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두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1667년 제주도에 표류한 임인관 이하 95명의 중국인을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인이 심문하여 표해인 일기(『표인문답』)를 작성했는데, 이 책이 마침 자기 집에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인이 당시 표류민들에게 속았다는 것이다<sup>18)</sup>. 그런데 그 표해인 일기에 나오는 번왕에 대한 기술이 서로 다르다. 즉 (1)에서는 번왕이 정성공이라 하고 (2)에서는 정지룡의 아들 정경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정성공은 1662년에 죽었으므로 1667년이면 이미 정성공이 죽은 지 5년이나 지난 후이다. 따라서 이때의 번왕은 정성공이 아니라 정경이다. 정성공은 1655년 남명의 계왕(桂王) 영력제(永曆帝)에게 연평왕의 작호를 받았으며, 이 작호는 그의 사후 아들 정경에게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정경은 정지룡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이며, 정성공의 아들이다.

16) 『星湖德說』 22권, 經史門 「永曆被擒」

17) 『星湖先生全集』 卷 26, 「与安百順(戊寅)」

18) 인용문 속에 나오는 이식은 이인(李士+寅)의 오자이고, 표해인 일기는 『표인문답(漂人問答)』을 가리킨다. 『표인문답』은 당시 제주목사로 갓 부임한 이인이 필담으로 표류민들을 심문한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1667년 6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문식(2012)의 「成海應이 증보한 『丁未伝信錄』」(『진단학보』 115, p.95.) 참조.

그렇다면 이인이 속았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익은 표류민들이 영력제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1667년을 영력 21년이라고 표기한 역사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력제가 사로잡힌 지 벌써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영력이란 연호를 사용하는 달력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익의 이 주장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실제로 영력제는 1661년에 사로잡혀 1662년 오삼계에 의해 운남의 곤명(昆明)에서 살해당했다.

그렇지만 영력 21년이란 연호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씨 일가는 정성공이 영력이란 연호를 채택한 이래 타이완의 정씨 왕국이 망하는 1683년(영력 37)까지 일관되게 영력이란 연호를 사용했다<sup>19)</sup>. 즉 영력제가 죽어 남명의 황통이 끊긴 이후에도 21년간이나 이 연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1667년에도 정경의 동녕왕국은 당연히 영력 21년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시 감옥에 갇힌 수인들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이익이 이 편지를 쓴 1758년 무렵 옥에 갇힌 죄수들이 정경의 아들, 즉 정극상이 해상진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해상진인이란 ‘해도의 정진인’이란 말로서, 정씨 성을 가진 해상진인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거병을 하여 조선을 없애고 새로운 왕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죄수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섬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조선을 없애고 새 왕조를 이룩한다는 해상진인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역모와 관련된 사람들로 추측된다. 이 무렵의 역모 사건으로는 1748년(영조 24) 4월 청주와 문의에서 적발된 패서 사건과 1755년(영조 31) 2월 나주에서 발생한 패서 사건이 있다. 청주와 문의 사건 관련자들은 “비기에 왜인 같지만 왜인이 아닌 것이 남쪽에서 온다”며 섬에 있는 세력의 지원을 받은 정진인이 새 왕조를 세울 것이라 주장했고, 나주 사건의 관련자들도 “비기 가운데 성세에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에 배 1천 척을 댄다”는 말이 있다며, 해도에 거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 다 해도를 강조한 공통점이 있는데, 당시 서남해에서 양 선박이 출몰하고 무인도가 개척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해도진인의 출현을 동경<sup>20)</sup>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반란세력들도 당연히 해상세력에 주목하게 되었고, 당시 가장 강력한 해상세력이었던 정성공 일가에게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 앞의 책, 진순신(1995), p.22.

20) 앞의 책, 백승중(2012), p.69.

사실 정경의 동녕왕국은 1683년에 멸망했고, 청에 항복한 정극상도 1717년에 죽었다. 따라서 이익이 이 편지를 보낸 1758년은 정극상이 죽고 나서 이미 40여 년이나 지난 뒤였다. 그러므로 정극상은 절대로 해상진인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정극상을 해상진인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익이 「해랑도(海浪島)」란 글에서 “해랑(海浪)은 섬 이름인데, 중국의 동북해 가운데에 있다. 명 나라 말기에 정지룡(鄭芝龍)의 무리들이 섬에 있는 도둑과 연결하여 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의 아들인 성공(成功)과 손자인 경(經)이 바다에 들어가자 우리나라에서까지 이를 걱정하게 되었으며 뜯소문으로 소동이 있을 적마다 반란자의 문초 가운데에서까지 말이 나왔다.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경(鄭經)이 바닷섬을 점령한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의 해랑선이라는 것은 그들의 후손이 아님을 어떻게 알겠는가?”<sup>21)</sup>라 한 것을 보면, 역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성공 일가가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정부는 동녕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남중국 연안에서 활동하는 해적과 정성공 일가와와의 관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1711년 조선통신사의 삼사(三使)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와의 필담에서 남중국해의 해적에 관해 번갈아 질문을 해가며 해적의 수괴와 정경의 관계를 확인한 것<sup>22)</sup>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정극상을 포함한 정성공 일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해상진인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 4. ‘정도령’으로서의 정성공

정성공은 1624년 7월 14일 나가사키(長崎)의 히라도(平戶)에서 중국인 아버지 정지룡(鄭芝龍)과 일본인 어머니 다가와(田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정지룡은 해적 겸 무역상으로 명과 일본을 왕래하며 히라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성공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 한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을 탈출했다<sup>23)</sup>.

21) 『星湖僊說』 2권, 天地門 「海浪島」. 사실 이익이 살고 있던 이 18세기 중엽 홍콩 주변을 근거지로 삼아 활약하고 있던 해적들은 정성공의 부하였던 정건의 후손들인데, 이후 이들이 남중국 연안을 주름잡는 해적들의 중심세력이 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이앤 머레이(2003)의 『그들의 바다 -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이영옥 옮김, 심산, pp.104-107.)을 참조.

22) 이수간(1977) 『동사일기』 『국역 해행총재』 IX 민족문화추진회, pp.236-237, pp.264-265.

23) 앞의 책(2004), 林田芳雄, p.3.

이후 1628년 9월 명에 귀순할 때까지 타이완 해협을 무대로 한 해적의 거두로 활동했기에, 정성공은 7살이 될 때까지 히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1630년 9월, 7살의 정성공은 어머니를 히라도에 남겨두고 홀로 아버지를 찾아 복건성으로 건너간다. 이때 아버지 정지룡은 명의 해방유격으로서 연안지방을 괴롭히던 해구들을 제압하여 조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다<sup>24)</sup>. 1644년 명이 망하자 아버지 정지룡과 함께 남명정권의 용무제와 영력제를 섬기며 반청복명운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 1645년에는 당왕 용무제로부터 성공이란 이름과 함께 주(朱)씨 성을 하사받았다. 그가 ‘국성야(国姓爺)’라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늘날 서양에서 그를 ‘콕싱야(Coxinga)’라 부르는 것도 바로 이 ‘국성야’의 복건 방언인 ‘콕선야(Koksenya)’에서 유래한 것이다<sup>25)</sup>. 물론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고쿠센야갓센(国性爺合戦)』이란 닌교조루리(人形浄瑠璃) 제목도 여기서 따온 것이다.

정성공이 23살 되는 1646년 어머니가 복건성으로 건너와 16년 만에 모자가 상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해 11월 당왕정권이 붕괴되는 와중에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정지룡은 청에 귀순한다. 그렇지만 정성공은 아버지와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그해 12월 스스로 ‘초토대장군 충효백 죄신(招討大將軍忠孝伯罪臣)’이라 칭하며 반청의 깃발을 든다. 1655년에는 계왕 영력제로부터 연평왕(延平王)에 책봉된다. 1658년 5월 남경을 공략하기 위해 17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하문을 출발하여 우여곡절 끝에 남경을 포위했지만, 적의 항복을 기다리다 청나라 응원군의 공격을 받아 수많은 부하를 잃고 하문으로 귀환했다<sup>26)</sup>. 이후 대륙에서의 거점을 잃게 되자 새로운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1662년 2월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점거하고 있던 타이완을 탈환한다. 그러나 석 달 후인 그해 5월, 39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이로써 17년간에 걸친 정성공의 반청복명 활동은 종언을 고하지만, 이 타이완 탈환으로 인해 그는 오늘날 타이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타이완에 성공대학(成功大學)이나 성공로(成功路)처럼 그의 이름을 넣은 기념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그를 서구의 식민주의 세력으로부터 중국 영토를 지킨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24) 한지선(2010) 「명말 정지룡의 해상제패 과정」 『명청사연구』 제34권 명청사학회, pp.99-104.

25) 앞의 책(2008), 조너선 클레멘츠, pp.207-208.

26) 앞의 책(2004), 林田芳雄, pp.32-34.

일본에서도 정성공은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일생을 극화한 『고쿠센야갓센』은 무려 17개월간 연속 상연되는 대기록을 세우며 당시 오사카 인구의 80%를 극장으로 끌어들이었다고 한다. ‘고쿠센야’란 이름의 과자나 장난감, 인형 등이 유행하고, 가부키로도 각색되어 교토, 오사카, 에도에서 절찬리에 상연되었다. 또한 그의 일생을 다룬 그림책(繪本)이나 소설도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sup>27)</sup>. 현대에도 도모노 로(伴野朗)의 『남해의 풍운아 정성공(南海の風雲児·鄭成功)』(1994)이나, 진순신(陳舜臣)의 『정성공』(1999), 가와무라 데쓰오(河村哲夫)의 『용왕의 바다(龍王の海)』(2010) 같이 그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또한 그가 타이완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로부터 수복하자 동아시아 무역의 근거지를 잃은 네덜란드가 그 대신 조선에 무역의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코리아호라는 배를 만들어 당시 조선을 향해 출항시키기도 했다<sup>28)</sup>. 물론 이 시도는 바타비아에 있던 네덜란드 상인들과 일본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는 당시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의 동방무역까지도 뒤흔든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도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조너선 클레멘츠(Jonathan Clements)는 『해적왕 정성공』과 같은 뛰어난 평전을 쓰기도 했다.

이에 반해 조선에서는 정성공이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실록』에서도 겨우 4차례만 언급될 뿐이다. 그런데 그런 정성공이 19세기 초 조선에서 다시 등장한다. 다음의 그림을 보자. 정성공의 어렸을 때 모습을 그린 「연평초령의모도(延平髫齡依母圖)」란 그림이다. ‘연평’은 정성공의 작호이고 초령은 7, 8세가량의 어린이를 가리키므로, 「연평초령의모도」란 ‘정성공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의지해 살던 그림’이란 정도의 뜻이다. 2층 발코니에서 허리에 칼을 차고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는 어린이가 정성공이고, 화면 아래쪽에서 중국식 의상을 입고 강아지 비슷한 동물을 안고 앉아 있는 사람이 어머니 다가와이다. 정성공이 7살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므로 그림 속의 정성공은 6-7세가량으로 생각된다<sup>29)</sup>.

그림의 왼쪽 윗부분에는 박제가(朴齊家, 1750- 1805)가 지었다는 「연평초령의모도」란 제화(題畫)가 있고, 그림 상단에는 청의 초순(焦循, 1763-1820)이 썼다는 글

27) 寺尾善雄(1986) 『明末の風雲児鄭成功』, 東方書店, pp.236-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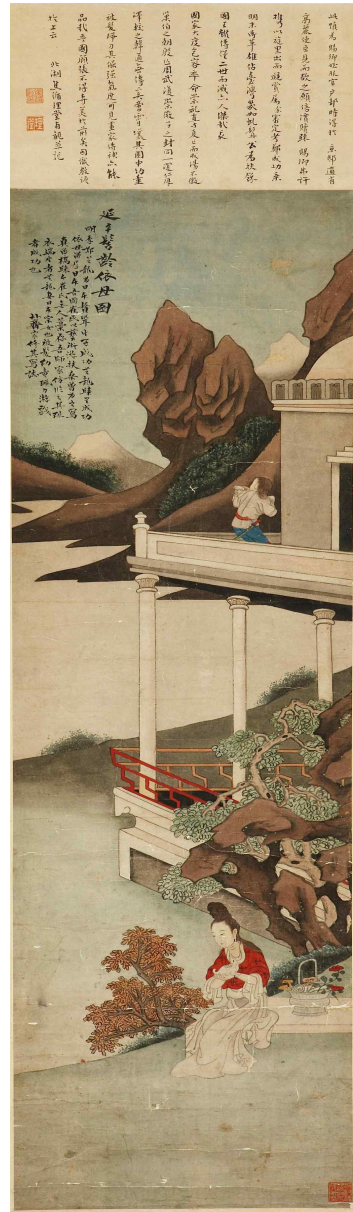
28) KBS 역사스페셜, 「조선과 통하라. 코리아호의 출항」, 2010년 1월 30일 방영.

29) 그림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정응수(2016)의 「정도령이 된 정성공」(『일본문화학보』 71집, 한국일본문화학보, pp.263-270.)을 참조할 것.

이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이 그림은 지금까지 박제가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한다<sup>30)</sup>.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그림 속의 제화를 작성한 사람이 최북(崔北)의 일본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조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제작 시기는 박제가를 사칭한 작품이므로 박제가가 죽은 1805년 이후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지금까지 소재가 정성공이란 점 때문에 반청복명의 상징으로 해석<sup>31)</sup>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확실히 정성공은 죽을 때까지 반청복명운동을 벌인 사람이므로, ‘정성공’에 주목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어린 정성공’을 그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즉 반청복명을 표현하기 위해 정성공이란 소재를 선택했다면, 어린 정성공이 아니고 반청복명운동을 가장 왕성하게 벌이던 시기의 모습, 즉 청장년 시기의 정성공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서는 그런 한창 때의 정성공이 아니고, 어머니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정성공을 등장시킨 것이다.

게다가 이 작품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 초는 이미 북벌을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었다. 왜란과 호란으로 망가진 조선을 재건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북벌론과 존주론(尊周論)은 이미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즉 조선보다 앞선 청나라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북벌론의 허구성을 깨닫고 청나라 문물을 배우기 위해 ‘북벌에서 북학으로’ 이미 방향을 바꾼 시기였다<sup>32)</sup>.



30) 정민(2014) 「박제가 「연평초령의모도」의 위작 변증」 『문헌과 해석』 66호, 문헌과 해석사, pp.148-169.

31) 예를 들어 김현영의 『통신사, 동아시아를 잇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등이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청에서도 이미 17세기 말부터 정성공을 추앙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일찍이 1699년에는 정극상에게 타이완에 있는 정성공과 정경의 묘를 고향인 복건성으로 이장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1787년에는 정성공에게 충절(忠節)이라는 시호도 내렸다. 청 왕조는 삼번과 달리 정성공 일가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다. 정성공 일가의 반청활동이 일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삼번은 한족의 장수로서 일단 청에 항복한 다음에 다시 청을 배반했지만, 정성공 일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의 유신으로 청에 저항했기에 이는 충의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때문에 청은 정성공 일가를 청의 역적으로 간주하기는커녕 그 충의를 기리기까지 했다. 청나라도 왕조로서 사람들의 이러한 충성심이 필요했던 것이다<sup>33)</sup>. 따라서 이 그림에서 반청복명의 사상을 읽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어린 정성공’을 등장시켰을까? ‘어린 정성공’을 다른 말로 하면 ‘정도령’이 된다. 정도령은 『정감록』과 관련해서 조선왕조를 없애고 계룡산 밑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진인을 가리킨다. 정도령이란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실록』에는 1728년 3월 무신란(戊申亂)의 취조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 무신란의 중심세력인 변산 노비 도적의 정팔룡(鄭八龍)이 정도령이라 했는데 그가 둔갑과 부적에 능하다고 했다<sup>34)</sup>. 여기서 정도령은 단순한 대장이 아니고 둔갑술이나 부적술 같은 도술을 부리는, 다시 말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729년 4월 9일에도 스스로를 정도령이라 칭하며 민심을 선동하던 배수일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실록』 기사가 실린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이미 조선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진인으로 정도령이란 존재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시에 정성공을 정도령이라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다시 말해 정성공의 일생에 사람들이 정도령이라 생각할만한, 정진인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자. 조동일은 세상을 구원할 진인의 일생을 구성하는 요소를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sup>35)</sup>, 이를 정성공의 일생과 대비해 보면 매우 흡사하다는 것

32) 정옥자(153)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pp.122-135, p.153.

33) 앞의 책, 진순신(1995), pp.33-34.

34) 『영조실록』, 영조 4년 3월 16일.

35) 조동일(1981)은 「진인 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해」(『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pp.116-117.)에서 진인의 일생을 구성하는 요소를 미친한 집안, 비정상적 출생 등 7가지로 정리했다. 이 진인과 정성공의 일생을 비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응수의 앞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중일(中日)혼혈인 점, 아버지가 정성공과 어머니를 일본에 남겨 두고 중국으로 떠난 점, 아버지를 찾아 혼자 중국으로 도향한 점, 본인의 군대를 거느린 점, 타이완에 동녕왕국을 건국한 점 등이 진인의 일생과 매우 닮아 있다.

게다가 이 시기는 예언서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다. 앞날을 예언하는 책은 고대로부터 존재했지만 18세기 이후 전성기를 맞이했다. 조선정부는 이 예언서들의 전파를 강력히 금지했지만 그럴수록 예언서는 더 널리 퍼져나갔다. 이 예언서 중에 『정감록』이나 『남사고비결』, 『도선비기』 등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정씨 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조선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정감록』이 가장 유명했다. 『정감록』은 18세기 후반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유포되었는데, 조선 후기에 발생한 궤서나 반역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sup>36)</sup>.

이처럼 『정감록』이 유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진인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을 갖고 있던 정성공이 세상에 불만을 가진 세력, 즉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성도 정씨였고 해도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도 소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정경과 손자 정극상도 이미 그 이전부터 정진인과 해상진인이라 불리고 있었다. 때문에 정성공이 이 모두를 포괄하는 정도령으로 추앙받았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 5. 결론

삼번의 난이 발발한 1670년대 조선에서는 장차 정씨가 조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도선 명의의 예언서가 유포되고 있었다. 이 예언은 때마침 퍼지기 시작한 정경의 조선침공설과 맞물리면서 조선을 커다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더구나 오삼계가 정경에게 조선을 지배하라고 했다는 소문까지 전해졌다. 당시 조선에서는 오삼계의 세력이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자 세상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이를 이용하여 정경을 도선의 예언서에 나오는 새로운 조선의 지배자, 즉 정진인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임술 3고변으로 역모에 몰린 이수윤 등은 이미

36) 백승중(2006)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pp.8-9.



정경이 군대를 이끌고 허사에 정박한 적이 있으며, 만약 정경이 군대를 이끌고 한강에 나타난다면 백성들이 환영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당시 정경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적어도 18세기 중반이 되면 정극상을 해상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해상진인이란 ‘남쪽 섬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조선을 없애고 새 왕조를 이룩하는 정진인’이다. 그런데 당시 정극상을 포함한 정성공 일가만큼 이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세력이 없었다. 즉 정성공 일가야말로 ‘남쪽에 있는 타이완 섬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곧 조선을 정벌하여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정진인’인 것이다. 아니, 둘이 너무 일치해서, 오히려 정성공 일가를 보고 해상진인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들이 사실(史實) 여부와 상관없이 정극상이 해상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면 정성공은 17세기 중반에 동아시아의 바다를 뒤흔든 인물이었지만, 조선에서는 19세기가 되어서야 주목받았다. 「연평초령의모도」란 그림의 주인공이 된 것인데, 제목 그대로 6-7세가량의 어린 정성공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진인으로 정도령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었고, 정도령과 관련된 『정감록』을 비롯한 예언서들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성공을 주인공으로 삼은 그림에서 한창 때의 정성공이 아니고 어머니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어린 정성공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유행한 ‘정도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성공 일가는 정도령으로 대표되는 구세주와 결합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정도령이란 조선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구세주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들은 한때 청을 위협할 정도의 무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들은 성도 정씨였고 해도에 근거지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대명의리를 지키지 않는 조선을 정벌하러 올 것이라는 소문, 바꿔 말해 조선을 멸망시킬 의사도 갖고 있었다. 정성공 3대가 시대에 따라 정진인이나 해상진인, 정도령 등으로 이름이 바뀌며 오랫동안 조선을 구원할 구세주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역비변사등록』 32권, 36권  
『동사일기』  
『성호사설』 2권, 22권  
『성호선생전집』 권 26  
『연려실기술』 34권, 36권  
『조선왕조실록』  
『추안급국안』 9
- 김문식(2012) 「成海이 증보한 『丁未伝信錄』」 『진단학보』 115, 진단학회, p.95.  
김우철(2012) 「조선후기 변란에서의 정씨(鄭氏) 진인(真人) 수용 과정」 『朝鮮時代史學報』 60호, 조선시대사학회, pp.84-88.
- 김 탁(2005) 『정감록』, 살림, p.68.  
김현영(2013) 『통신사, 동아시아를 잇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p.127-128.  
백승중(2006) 『한국의 예인문화사』, 푸른역사, pp.8-9.  
\_\_\_\_\_ (2012)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pp.240-242.
- 정 민(2014) 「박제가 「연평조령의모도」의 위작 변증」 『문헌과 해석』 66호, 문헌과 해석사, pp.148-169.
- 정옥자(2003)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pp.122-135, p.153.  
정응수(2016) 「정도령이 된 정성공」 『일본문화학보』 7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261-277.  
조동일(1981) 「진인 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해」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pp.116-117.
- 한상권(1992) 「18세기 전반 명화적 활동과 정부의 대응책」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497-498.
- 한지선(2010) 「명말 정지용의 해상제패 과정」 『명청사연구』 제34권, 명청사학회, pp.99-104.  
다이앤 머레이(2003) 『그들의 바다 -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이영옥옮김, 심산, pp.104-107.
- 조너선 클레멘츠(2008) 『해적왕 정성공』 허강 역, 삼우만, pp.207-208.
- 진순신(1995) 『중국의 역사』 11 권순만 외 옮김, 한길사, p.22.  
寺尾善雄(1986) 『明末の風雲児鄭成功』, 東方書店, pp.236.  
林田芳雄(2004) 『鄭氏台湾史—鄭成功三代の興亡実紀』, 汲古書院, p.3.  
林春勝, 林信篤(1981) 『華夷変態』 上, 東方書店, pp.135-136.  
浦廉一(1953) 「台湾鄭氏(特に鄭經)と朝鮮との關係」 『広島大学文学部紀要』 3, 広島大学, p.74.  
KBS 역사스페셜 「조선과 통하라. 코리아호의 출항」, 2010년 1월 30일 방영.

논문 투고 일자 : 2017. 12. 19.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 要 旨 >

朝鮮の救済主の「鄭道令」と鄭成功一家

鄭應洙

これは、鄭道令に代表される朝鮮の救済主と明・清の交替期に反清復明運動を展開した鄭成功一家との関係を究明したものである。鄭成功-鄭經-鄭克塽につながる鄭成功三代の中で、一早く朝鮮から注目された人は鄭經であった。彼はすでに17世紀から朝鮮を滅ぼし、新しい国を建設する鄭真人と見なされていた。これには勿論、当時、鄭氏が朝鮮を支配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道詛名義の予言書が流行ったせいもあっただろう。

鄭克塽は18世紀に「南の島から兵を起し朝鮮を滅亡させたあと、新しい国家を建設する鄭真人」という海上真人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鄭成功は18～19世紀に、このようなメシアのすべてを代表する「鄭道令」としてのイメージを持つようになる。こうしてみると、三人とも時代によって鄭真人や海上真人、鄭道令のように名前は変わるが、朝鮮を救援する救済主として見な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すなわち、鄭成功三代が17世紀から19世紀にかけて朝鮮を救うメシア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たのである。

Jeongdoryeong, a Messiah in the Chosun Dynasty,  
and the Family of Zhèng Chénggōng

Chung, Eung-Soo

The current article intend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Jeongdoryeong, who was considered as a messiah in the Chosun Dynasty, and the family of Zhèng Chénggōng (1624-1662), who campaigned against the Cheong Dynasty in the Myong-Cheong transition period. Of the three generations of the family, Zhèng Chénggōng, Zhèng Jīng-Zhèng and Kè Shuǎng, Zhèng Jīng received the most attention from Chosun. He was already considered as “Jeong True Man,” one who would destroy Chosun and build a new country, partly because the popular prophecy of Dosun foretold that a man named Jeong would rule over Chosun.

Zhèng Kè Shuǎng, in turn, was called “Naval True Man,” one who would raise troops in an island in the south, and destroy Chosun and build a new kingdom, while Zhèng Chénggōng was recognized as Jeongdoryeong, a representative messiah in the 18<sup>th</sup> and 19<sup>th</sup> centuries. These three individuals were all perceived as messiahs, although they were called by slightly different names, such as “Jeong True Man,” “Naval True Man” or “Jeongdoryeong,” respectively. In other words, the family of Zhèng Chénggōng played the role of messiah from the 17<sup>th</sup> through the 19<sup>th</sup> centuries.